

## 전문건설인들의 외침



유경열 / 대한건설신문 대기자

전문건설인들이 지난 11월 23일 생업을 뒤로 하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모여 울분을 토했다. 전국에서 무려 8,000여명이 모인 것이다.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일감부족, 여기에 불공정하도급 관행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최대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모인 중·소전문건설인들은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열관리시공협회 회원들로 무려 8만여 업체나 되는 조직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건설분야에도 경제민주화공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하도급 대금 우선 변제 장치 마련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표준 품셈 현실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공공공사 분리 발주 확대 ▲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

은 결의문을 채택,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공동 선대위원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받은 양당 대표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전문건설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국민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무상복지만을 외치지 말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다. 일자리창출 이것 또한 복지다. 건설업에서 그 답을 찾아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 설득력이 있다. 경북에서 올라온 B건설 J사장은 “원도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다”며 “종합건설사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않고 부도가 나면 하도급자가 매출채권 대출금과 연체료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지금 심정은 한 마디로 죽고 싶다고 말했다.

“ 한때 잘 나가던 종합건설사 150개사 중 25개 업체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상태다. 종합건설사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자재업자, 장비업자 그리고 건설근로자들, 한마디로 거리로 나왔게 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두렵다. 또 하나, 경기전망 자료를 보면 ‘건설업은 비관적’이라는 예측이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사회, 상생을 부르짖고 있다. 가진자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찬바람이 부는 날 일산벌판에 모인 이들의 ‘생존외침’은 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

지금 건설업계는 건설물량감소 등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기업의 유동성 자금 고갈, 수익성 하락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며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다. 건설산업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때 잘 나가던 종합건설사 150개사 중 25개 업체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상태다. 종합건설사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자재업자, 장비업자 그리고 건설근로자들, 한마디로 거리로 나왔게 된다. 건설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은 건설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도미노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문건설업체 부도건수는 109건, 폐업건수는 1,992건에 달한다. 한때 건설시장에서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이름값을 하던 대형전문건설업체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3건에

그쳤던 종합건설사 법정관리 신청건수가 올해 9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본 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작년 415개에서 올해는 2,942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3조6,195억원의 동반부실을 예견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들에게 보충·용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에 큰 부담을 안겨 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두렵다. 또 하나, 경기전망 자료를 보면 ‘건설업은 비관적’이라는 예측이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날아온 한 글귀가 갑자기 떠오른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좁아졌다”는 말이다. 결론은 욕심이다. 우리는 공정사회, 상생을 부르짖고 있다. 가진자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찬바람이 부는 날 일산벌판에 모인 이들의 ‘생존외침’은 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